정보 무늬(QR코드) 이용 시, 음성으로 보도자료를
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안드로이드 아이폰

국민권익위원회 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보도설명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: 즉시 보도 배포: 즉시 배포

‘“손가락 자른다”...악성 민원 급증에도 ‘법적 공백’’ (‘26.10.3. 연합뉴스TV) 관련 보도설명자료

□ 연합뉴스TV는 3일 ‘“손가락 자른다”...악성 민원 급증에도 ‘법적 공백’’ 제목의 기사에서 ‘이미 처리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’고 보도했습니다.

□ 설명내용

○ 2025년까지는 30번 이상 제기한 반복민원이 증가하였으나, 2026년 1월 집단·특이민원 전담 해결을 위한 집단갈등조정국 신설 이후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반복민원은 감소하였습니다.

- 2025년 33,486건에서 2026년 8월말 현재 10,133건,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5,199건으로 55% 가까이 줄었습니다.

○ 정부는 반복민원 감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
- 2026년 6월 반복·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개편하여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 ‘갈등조정담당관’을 지정해 대응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.

- 중앙정부 대상으로 2025년 30건 이상 제기자의 2026년 반복민원 감축 성과를 월별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2025년 2~8월 300,265건에서 2026년 동기간 244,171건으로 56,094건 감소하였습니다.

-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2026년 112명으로 확대하여 각급기관의 특이민원 대응·상담·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집단갈등조정국 민원갈등소통과	책임자	과 장	최명식 (044-202-1270)
		담당자	서기관	안성기 (044-202-1272)

#국민권익위#특이민원#